

MTO 머니투데이

파이토믹스, 카이스트 기후변화연구소와 탄소제로 스마트팜 연구

입력 2023.09.22. 오후 3:00 수정 2023.09.22. 오후 4:53 기사원문

김건우 기자

추천

댓글



정희태 카이스트 기후변화연구소 소장(생명화학공학과 석좌교수)과 정용석 파이토믹스 대표(왼쪽)가 22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공동연구 MOU를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 /사진제공=파이토믹스

빅데이터와 인공지능(AI)을 접목한 첨단 그린바이오 전문기업 파이토믹스가 카이스트(KAIST)와 손잡고 '친환경 탄소 제로' 스마트팜 등 기후변화 대응 첨단 농업 기술 연구에 나선다.

파이토믹스는 22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카이스트(KAIST)-UC버클리-베트남국립대(VNU) 기후변화연구소(소장 정희태 카이스트 석좌교수)와 공동연구 업무협약(MOU)을

머니투데이

[주요뉴스](#) [숏폼](#) [경제](#) [정치](#) [사회](#) [세계](#) [IT](#) [생활](#) [사설/칼럼](#) [신문보기](#) [랭킹](#)

한 농업을 위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.

정용석 파이토믹스 대표는 "기후변화 연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카이스트와 첨단 농업 분야 연구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"라고 말했다.

정희태 카이스트 기후변화연구소 소장은 "식물을 다루는 학문과 공학의 만남으로 의미 있는 학문 간 융합 협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라고 말했다.

한편 파이토믹스는 농생명과학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인 위스콘신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정용석 대표가 2021년 설립했다. 정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산하 종자 센터 및 식물자원센터, 킹사우드대학교 및 독일 괴팅겐대학교 등에서 표현체학(Phenomics) 등 첨단 농업 연구 관련 강연을 한 바 있다.

[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]

김건우 기자 (jai@mt.co.kr)

MTO 머니투데이

김건우 기자 >

구독

구독자 1,437 응원수 436

셀트리온, 美 이종항체 에이비프로 투자 1년만에 130% 차익 기대
"로봇·EV·UAM 필수 탑재" 유일한 희토류 영구자석 밸류체인 완성"

Copyright © 머니투데이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[경제](#)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.



메인에서

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!

구독



다시 보는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 [뉴스속오늘]
QR 코드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어요.



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[유니콘팩토리]
QR 코드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어요.